

한영교회 온 가족 예배

12/4(월)~9(토)



하나님이 주신다는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
우리 가정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성도의 자격

[욥기 29:1-25]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29:1-25]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자격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로 성도의 자격을 갖춘 자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욥의 삶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1. 이웃을 사랑합니다. 욥은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빈궁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의 눈이 되고 발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진실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직 적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욥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나누고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쌓아 둘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2. 말씀을 사랑합니다. 욥은 물질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말씀에는 지혜가 충만하고 진정한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이면 말씀 배우기에 힘쓰고 흠어지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은 말씀의 기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말씀이 없어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입니다. 교회가 말씀의 기갈 가운데 있을 때 이단은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3. 존귀한 자로 살아갑니다.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가난하고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위, 돈, 명예, 성공이 자신을 존귀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시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귀한 진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욥은 단순히 지위가 높아서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존귀하게 하셨고 욥은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삶에 방향을 제시했으며 슬퍼하는 자를 위로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섬김의 삶을 통해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 나눔**
1.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2.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셨는데, 나는 그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로도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고난의 십자가

[요기 30:1-15]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요기 30:1-15]의 말씀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난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을 소망하게 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게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십자가의 사랑 요은 비천한 자들에게 조롱당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이유는 죄로 인한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롱받을 때 화가 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모습은 믿음을 갖기 전 우리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 처럼 비천했으며 복음을 알지 못해 함부로 행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비웃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2. 십자가의 길 요은 극심한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심지어 요의 고난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며 조롱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을 정도로 요을 함부로 대합니다. 사람들의 이런 처사는 너무나 가혹하며 부당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가혹한 고난이 닥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는 영광을 취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오히려 고난이 영광입니다. 만일 아무런 고난도, 어려움도 없다면 스스로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성도가 맞는가?'

3. 십자가의 소망 어떤 것도 고난을 겪은 요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요이 가졌던 그 많은 것도 결국 아침 이슬처럼 맥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돈, 지위, 명예, 인맥을 의지할지라도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절망하시나요? 성도는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에 행복합니다.

- 나눔**
1.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비웃음이나 고난을 당한 적이 있나요?
 2.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피하고 있지는 않나요?

기도 000가 고난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욥의 애가

[욥기 30:15-31]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30:15-31]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정말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욥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을 구합니다. 욥의 경험 속에서 환난 날을 맞이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하나님이 욥을 내팽개치시다 생명이 녹을 정도의 고통입니다. 밤이 되면 쭈서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아픔이 쉬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만들었는가? 지금 욥의 대적은 비열한 부랑아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격과 모욕을 용인하시는 하나님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무서운 힘으로 던지고 옷처럼 구기고 거의 죽게 만드셨습니다. 악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뒤에서 하신 것으로만 생각되었습니다.

2. 하나님은 끝내 침묵하시다 욥은 부르짖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사랑과 자비의 손을 내밀어 구원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욥 자신이 궁핍한 자들과 함께 울고 고아와 과부의 곤경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고난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의인의 간구에 침묵하신 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누군들 도와주겠습니까.

3. 최선에 최악으로 돌려받다 욥이 기대한 복 대신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빛 대신 흑암이 덮쳤습니다. 뼈가 쭈서서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고 눈을 뜨고 보내는 낮에는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으로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었습니다. 이리와 타조처럼 그는 통곡과 애곡으로 눈물과 탄식으로 온종일 보냅니다. 의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고생하는 자들을 위해 울어주었고, 빈궁한 자를 위하여 같이 근심해주었고, 재앙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욥은 늘 최선을 추구했는데, 하나님은 최악으로 갚고 계십니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

나눔 1. 오랜 시간 동안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경험에 대해 나눠봅시다.

2. 나를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 결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의 경험을 나눠봅시다.

기도 피할 수 없는 환난이 지속될 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소망은 무너집니다. 그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 낙심되는 바로 그때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의 노래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지게 하소서.

욥도 두려워할 하나님의 심판

[욥기 31:1-23]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31:1-23]의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로우며, 자신에게 감추어진 죄악이 없음을 자신합니다. 이런 욥의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욥과 같이 당당할 수 있을까요?

1.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인생 욥은 하나님을 자신의 길을 살피시고 걸음을 다 세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직 이 한 분 앞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행동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생각합니까? 우리는 삶의 한 부분도 하나님께 감출 수 없으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직고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만족시켰다고, 혹은 주변 사람들이 괜찮다고 인정한다고, 남들보다 좀 더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하지 마십시오.

2. 하나님과 같은 거룩으로 판단되는 심판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제발 그 저울에 달지 말아 달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하나님과 같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율법 전체를 다 지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나, 죄도 없고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께 순종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3. 죄에 대한 영원한 진노와 심판 욥은 자신이 타인의 아내를 범했다면, 자기 아내도 그와 같이 되고 자기 소유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그 형벌은 영원한 죽음과 고통뿐입니다. 죄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죄의 크기를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에 대해 대신 형벌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나눔 1. 우리 삶의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인생 전체가 드러날 것이기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2.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주님만을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기도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진노를 기억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신자는 수고하면서도 겸손하다

[욥기 31:24-40]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31:24-40]의 말씀입니다.

주를 위해 수고했던 사람이 차츰 겸손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은 하는 듯해도 신자다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도 늘 겸손할 수 있을까요?

1.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욥은 원수의 재난을 즐거워하지 않았고, 나그네를 돌봤으며, 악을 숨기지 않고 선행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욥은 여러 가지를 포기하면서 많은 수고와 물질을 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 수고했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항상, 전부'라는 조건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봅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따르기 위해 애쓰더라도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감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율법을 다 지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애써 지켜 가는 자,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2. 하나님께만 빚진 자 욥은 누구라도 자신을 고발할 일이 있다면 고소장을 쓰라고 자신합니다. 자신의 삶을 면밀히 수사하도록 하고, 고소장을 어깨에 메기도 해 모든 사람이 보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욥과 같이 사람 앞에 거리낄 것 없고, 빚진 것 없이 살아왔다면 하나님께도 당당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만약 그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살피시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알기에, 그분의 공정한 잣대로 판결하시면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는 자,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3. 하나님의 원칙을 인정하는 자 욥은 만일 자신에게 부당한 이익, 갈취한 재산이 있다면 자신의 모든 곡식이 독보리가 될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원칙,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때마다 성령께 순종하여 살아가며, 씨를 뿌림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처럼 수고하여 씨를 뿌리면 그에 따른 보상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며 열매를 위한 씨를 뿌리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씨를 뿌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 나눔**
1. 하나님의 공정한 잣대로 판결하시면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이 나의 삶에도 적용되고 있습니까?

기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고 신자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리만을 말해야 합니다

[요기 32:1-22]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요기 32:1-22]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침묵을 깨고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붓물 터트리듯이 말하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1. 자세히 들은 후에 말하십시오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예수님만 안다는 명예로운 호칭으로 듣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듣는 또 하나의 호칭 '말쟁이'는 너무 마음에 걸리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하고 상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때,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공허함과 피로함만 남길 때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럴 때 그 말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이치에 맞으면 맞을수록 위화감만 조성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진부해지게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할 때 은혜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듯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진리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참된 것을 용기 있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상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면 답답한 일입니다. 게다가 진리가 아닌 것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진리를 식별해 내기에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정황들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진리를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없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모르고 중세의 어둠에 갇혀있던 당시, 루터는 성경을 번역하며 그런 어둠이 물러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읽고 가슴에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3. 하나님 앞에서 말하십시오 우리가 코람데오(Coram Deo)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름스 의회에서 루터는 카톨릭의 회유와 협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는 여기 서 있고 다른 일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종교개혁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루터와 같은 압박은 없지만 인간관계로 인해 주어지는 유익, 반대급부로 인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진리를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말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눔 1. 나의 말에는 공허함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2.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행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나누어 보세요

기도 하나님,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코람데오' 할 수 있는 신앙을 주옵소서.